

難經중 俞穴篇에 對한 研究(Ⅰ)

金善鎬·金容辰·尹暢烈*

Ⅰ. 緒 論

《難經》은 《黃帝內經》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問答을 假設하여 疑難을 解釋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 《黃帝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原典的인 思想을 各種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書籍인 것이다.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으나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다. 왜냐하면 《史記·扁鵲列傳》에 《難經》이 提示된 바 없고, 《漢書·藝文志》에도 이 書가 記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讖緯學說인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 매우 明顯하므로,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六朝時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主張은 著作年代를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왜냐하면, 《傷寒雜病論·自序》에 이미 八十一難의 名稱이 提示)되었고, 또 《隋志》에 本書가 일찌기 三國時代 呂廣(呂博, 呂博은 어려서부터 醫術로 有名하고 診脈論疾을 잘하였다. 著述한 바가 많고 吳나라 赤烏二年에 太醫令이 되었으며 《玉匱鍼經》을 撰하였고 81難經을 註하였는데 當代에 크게 流行하였다. 搜窠集에는 呂廣이 吳나라 太醫令이며 《難經註解》를 著했다 하니 무엇이 옳은

지는 未知다.)의 注本에 言及되었음이 記載되어 있다. 卽 그것이 또 東漢以前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近來의 사람들은 本書를 東漢人의 所作이라고 考證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難經》은 問難의 形式으로 古醫經을 解釋한 理論書이다. 全書는 모두 81個 問題를 討論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稱한다. 討論한 問題는 大部分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다. 主要한 內容은 脈診, 經絡, 臟腑, 俞穴, 針灸 및 一部分 疾病을 包括하고 있다. 脈診 部分에서는 內經의 三部九候를 氣口部位의 寸·關·尺 三部와 每部를 또 浮·中·沈 三候로 解釋하였다. 이것은 脈診의 趨勢가 氣口一處로 集中됨을 表現한것이다. 經絡部分에서는 처음으로 奇經八脈의 說을 提出하였고 아울러 比較的 系統的인 說明을 加하여 《內經》의 이 方面에 있어서의 比較的 混亂한 缺陷을 補充하였다. 臟腑部分에서는 左腎爲腎이오 右腎爲命門이라는 說을 提出하였고, 아울러 所謂 腎間動氣의 作用을 強調하여, 後世 命門學說의 先端을 열었다. 이외에 또 三焦有名而無形의 說을 提示하여, 그 以後 一千餘年 동안 罔히어 判明이 안되는 爭論을 가져왔다. 疾病部分에 있어서는 傷寒을 中風, 傷寒, 濕溫, 溫病의 五種으로 分類하였고, 積聚를 臟腑에 分屬시켜 五臟에 生하는 것은 積이 되고, 六腑에 生하는 것은 聚가 된다고 認識하여 具體적으로 五臟의 積의 名稱 및 症狀等을 記述하였다. 針灸治療方面에 있어서는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原則 등을 提示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 以後의 東醫學發展에 對하여 적지 않은 影響을 주었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p.20.

다.2)

한편 本書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찾고, 編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回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3) 難經에 最初로 註를 한 사람은 三國時 吳의 太醫令 呂廣으로 알려졌으며4) 以後 數十家의 程註家에 依해 數十種의 註解書가 傳해 온다.

《難經》이 갖는 醫學史的 價値는 무엇보다도 《黃帝內經》을 研究하는 入門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難經》의 特長은 《內經》을 뛰어 넘는 獨創性이 있다.5) 그 中の 한가지가 鍼灸學分野에서의 五輸穴과 原穴, 背俞穴과 腹募穴의 運用과 八會穴鍼灸治療上의 效能을 首唱한 점이다. 이는 62難에서부터 68難까지의 內容으로서 '俞穴篇'이라고도 한다. 楊玄操의 《難經集注·序》에 따르면 "今輒條貫編次하여 使類例相從하여 凡爲一十三篇仍舊八十一首라"6)고 하여 처음으로 《難經》을 13篇으로 나누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俞穴篇"은 楊玄操의 區分에 따른 것이다.

筆者는 바로 이 部分을 體系的으로 研究하고자 함이며, 이에 첫 過程으로서 이 論考를 發表하는 바이다.

II. 研究 方法*

本篇의 全盤의인 理解를 돕고 內容을 比較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國譯을 하였고, 校勘 字句解를 加하였으며, 各家注를 引用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學術的인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7)를 基

準으로 삼았다.

나. 縣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國譯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爲主로 하되 各 註釋들 中에서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爲主로 약간의 意譯을 加하였다.

라. 校勘은 各 引用 文獻 中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여 전체적 文義에 비추어 보아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것을 決定하여 提示하였다.

마. 字句解는 原文 中에서 難解한 部分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意見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爲主로 比較 說明하였다.

바. 各家注는 아래에 提示할 引用 文獻의 註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提示하였고, 縣吐 以外에 註釋 內容의 理解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은 脚註로 處理하여 提示하였다. 단, 中國의 文獻을 우선 앞에 제시한 후, 뒤에 日本의 文獻들을 提示하였다.

사.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들을 土臺로 各 難의 學術的인 內容들에 대해서 總括하여 整理하였다.

아. 考察 中에 內容을 理解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內容과 各家에 대한 解說이나 註釋의 補充 說明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各家에 대한 說明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3)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8. pp.3-4.

4)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9, 64, 66, 71.

5)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3

6)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2.

* 本 論文集 編集關係로 著者와의 相議하에 '原文' '各家注' '考察'을 除外한 모든 部分을 省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p.95.

參考하였다.)

자.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 校勘은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각주는)로 表示하였다.

차. 本 論考의 特性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引用文獻의 注釋 篇次를 바꾸기도 하였다. 단, 全體의인 文意에는 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圖表*와 같다. 各 注釋書의 時代와 順序는 千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中 “難經의 註解書 目錄”⁸⁾을 參照하였다.

Ⅲ. 研究 內容

第 六 十 二 難

【原文】

六十二難曰 藏井榮有五 府獨有六者是何謂也¹¹⁾

然이라 府者陽也니 三焦行於諸陽이라 故置一俞 名曰原¹²⁾이라하니 府有六者는 亦與三焦共一氣也¹³⁾니라

【各家註】

《本義》⁹⁾

[1-3] 藏之井榮有五는 謂井榮俞經合也요 府之井榮有六는 以三焦行於諸陽이라 故又置一俞而名曰原이라하니 所以府有六者는 與三焦共一氣也니라

虞氏曰 此篇疑有缺誤하니 當與六十六難 參攷니라

《集注》¹⁰⁾

[1-3] 丁¹¹⁾曰 三焦者는 臣使之官이니 位應相火하고 宣行君火命令하야 使行於諸陽經中이라 故로 置一俞하야 名曰原이니

所以府有六은 亦是三焦之一氣이라 故로 三焦共一氣也니라

楊¹²⁾曰 五藏之脈에 皆以所出爲井이요 所流爲榮이요 所注爲俞이요 所行爲經이요 所入爲合이니 是謂五俞以應金木水火土也니라 六府亦並以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過爲原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니 其俞亦應五行이니 惟原獨不應五行이니 原者는 元也라 元氣者는 三焦之氣也니 其氣尊大故로 不應五行이라 所以六府有六俞도 亦以應六合於乾道也라 然이나 五藏亦有原則以第三穴爲原이요 所以不別立穴者는 五藏法地라 地卑 故로 三焦之氣經過而已하고 所以無別穴하니 六府既是陽 三焦亦是陽 故로 云共一氣也라하니라

虞¹³⁾曰 天以六氣司下하고 地以五行奉上하니 六氣者는 風寒暑燥濕火也요 五行者는 金木水火土也라 十一之氣 | 相因而成하니 人應之하야 乃六府法六氣하고 五藏法五行하니 亦十一之氣 | 相因而成也니라 天得六은 謂天屬陽이니 以陰數配之요 地得五는 謂地屬陰이니 以陽數配之하야 而成陰陽也라 人府藏도 亦然하니 六府配六氣者는 謂膽木配風하고 膀胱水配寒하고 小腸火配暑하고 大腸金配燥하고 胃土配濕하고 三焦少陽配火하니 三焦爲原氣니 在六府陽脈中에 自立一爲原也라 五藏配五行者는 肝木心火脾土肺金腎水니 五藏法陰하야 無原一穴者는 謂五行陰脈穴中 原氣가 暗主之라 故로 原井俞는 同一穴也라 (按컨데 五藏은 以俞爲原하니 此井字는 疑衍

9)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122.

10)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59-261..

11) 이름은 德用이다. 宋 嘉祐年間에 濟陽人이다. <<難經補注>>를 지었다고 한다.

12) 이름은 玄操이다. <<難經註釋>>을 지었다고 한다.

13) 이름은 庶이다. 宋 治平年間의 陵陽人이다. <<難經註>>를 지었다고 한다.

* '難經중 脈學條에 關한 研究' 論文을 參考 하시기 바랍니다.

8)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이라) 故曰 三焦共一氣는 其理明矣라 詳此經義前後問答文理有關이라

《圖註》14)

[1-3] 五者는 井榮 經合也요 六者는 井榮 膻原經合也니 三焦主持諸氣라 故曰 六腑之經에 多亡膻穴而名之者는 爲原이니 所以腑有者는 六腑之氣 與三焦之氣로 同一陽也니라

《經釋》15)

[1] 五는 謂井榮俞經合也요 六謂井榮俞原經合也라 其穴詳靈本輸篇이라

[2] 俞는 穴也라 靈本輸篇에 以所過之穴로 爲原하니 蓋三焦所行者 | 遠하니 其氣所流聚之處에 五穴不足以盡之라 故曰 別置一穴하야 名曰原也라하니라

[3] 共一氣는 謂亦行於諸陽이요 非謂其氣皆出於三焦也라 其詳은 備見六十六難中이라

《懸解》16)

[1-3] 五藏五膻는 井 榮 俞 經 合 也 也 六府六膻는 井 榮 俞 原 經 合 也 也 詳見靈樞本輸니라 府有六膻者는 以五府之外에 又有三焦一府라 故曰 多置一原穴以配之니 此亦與三焦共一氣也니라

《圖註》17)

[1-3] 井榮膻經合 此五者는 配五臟하고 井榮膻原經合 此六者는 配六腑하니 六腑多一原하야 所以臟五而腑六也라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膻 所行爲經 所入爲合 所過爲原也라

《正義》18)

[1-3] 藏有五者는 謂井榮俞經合也요 府有六者는 謂井榮俞原經合也라 夫五藏之脈은 皆以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이 是謂五俞요 以應五行木火土金水也라 六府亦有俞하야 以應五行金水木火土也로대 惟過之穴爲原이라 故有六也라 原者는 元也라 元氣者는 三焦之氣也

14)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p.6.

니 蓋三焦包絡이 主相火라 故曰 列五行之外 而三焦所行者 | 遠하니 其氣所流聚之處에 五穴不足以盡之라 故曰 別置一穴하야 名曰原也라하니 三焦爲陽氣之根이요 六府屬陽하니 其氣皆三焦所出이라 故曰 共一氣也라하니라

《匯海》19)

[1-3] 滑伯仁注에 藏之井榮有五는 謂井榮俞經合也요 府之井榮有六은 以三焦行於諸陽이라 故又置一俞하야 而名曰原이라하니 所以府有六者는 與三焦共一氣也니라

虞庶曰 此篇疑有缺誤하니 當與六十六難參考라

徐靈胎注 靈本俞篇에 以所過之穴爲原하니 蓋三焦所行者 | 遠하니 其氣所流聚之處에 五穴不足以盡之라 故曰 別置一穴하야 名曰原이라하니 共一氣는 謂亦行於諸陽이요 非謂其氣皆出於三焦也니라

日醫賤萬卿注에 此篇所問은 五藏每經에 有井榮俞經合이로대 六府每經엔 五穴之外에 增一原하야 有六者는 何也오 其答意는 謂原者는 三焦氣所過니 而凡刺諸十二經穴於手足四關之末 則必兼俞與原하야 以調三焦之變化라 然이나 其在陰經 則以俞爲原하고 而陽經獨別有原者는 蓋三焦 是六府之配니 而雖無其形이나 然이나 五府非此氣면 則何緣能得幹施運化水穀乎아 然則府之爲物이 專賴此氣之運用耳라 故曰 府有六者는 亦與三焦共一氣也라하니라

日醫古屋曰 三焦者는 原氣之別始也니 故曰 共一氣也라하니라

15)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4.

16)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64.

17) 丁錦, 古本難經圖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6.

18)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7.

19)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3-144.

《古義》²⁰⁾

[1-3] 按컨데 此篇所問은 五藏每經이 有井榮俞經合하고 六府每經이 五穴之外에 增一原하야 有六者는 何也오 其答意는 謂 原者는 三焦氣所過니 而凡刺諸十二經穴於 手足四關之末 則必兼俞與原하야 以調三焦之氣化라 然이나 其在陰經 則以俞爲原하고 而陽經獨別有原者는 蓋三焦是六府之配니 而雖無其形이나 然이나 五府非此氣면 則何緣能得幹施運化水穀乎아 然則府之爲物에 專賴此氣之運用耳라 故曰 府有六者는 亦與三焦共一氣也라하니라 此下五篇은 通言井榮俞經合之義로대 但每篇各異其趣하니 讀者錯綜以求其義하야 斯得其旨矣니라

《哀腋》²¹⁾

[1-3] 藏之井榮有五요 謂井榮俞經合也요 府有六者는 謂井榮俞原經合也라 六府爲陽하고 以三焦主持原氣하야 而通行於諸陽이라 故又置一俞하야 而名曰原이라하니 所以與三焦共一氣也라 當與六十六難參攷니라

【考察】

“藏有井榮有五요 府獨有六者”에 대하여 虞庶는 “天以六氣司下하고 地以五行奉上하니 六氣者는 風寒暑燥濕火也요 五行者는 金木水火土也라 十一之氣 | 相因而成하니 人應之하야 乃六府法六氣하고 五藏法五行하니 亦十一之氣 | 相因而成也니라 天得六은 謂天屬陽이니 以陰數配之요 地得五는 謂地屬陰이니 以陽數配之하야 而成陰陽也라 人府藏도 亦然하니 六府配六氣者는 謂膽木配風하고 膀胱水配寒하고 小腸火配暑하고 大腸金配燥하고 胃土配濕하고 三焦少陽配火하니 三焦爲原氣니 在六府陽脈中에 自立一爲原也라”²²⁾라고 하여 六腑는 六氣를 본받고 五臟은 五行을 본받는데 天은 陽에 屬하므로 陰數로서 配合되

고 地는 陰에 屬하므로 陽數로서 配合되기 때문에 天은 六氣로서 司下하고 地는 五行으로 奉上하므로 五臟은 五俞가 되고 六腑는 六俞가 된다고 說明하였다. 그 差異는 原穴의 有無에서 發生하는데, 原穴은 陽經과 陰經에 모두 있으나 陰經은 俞穴이 原穴을 兼하고 있으므로 5個가 된다.

이 難에서는 陽經에 原穴이 獨立的으로 있는 것과 陰經에는 俞穴이 原穴을 兼하고 있는 理由를 說明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理解하기에는 內容이 充分하지 못하다. 《本義》에서도 滑壽가 禹庶의 말을 引用하여 說明하기를 “此篇에 疑有缺誤라”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事實인 듯 하다. 理由는 三焦의 氣가 여기서 말한 “三焦行於諸陽이라”는 內容과는 달리, 결코 單獨으로 陽經이나 陽分만을 循行하지 않고 《六十六難》에서 이른바 “五臟俞者 三焦所行 氣之所留止也”와 같이 또한 陰經도 역시 循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俞穴은 氣가 留止하는 곳이며 三焦의 原氣는 腎의 精이 化하여 머무르는 곳이고 榮衛의 內에 들어가 全身을 循行하며, 生命體에 賦與된 原動力이 니 陰陽의 區別은 없는 것이며 全身의 陽經과 陰經을 走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難에서 說明하고자 한 陽經에 原穴이 따로 존재하는 것과 陰經에서는 俞穴이 原穴을 兼하는 것의 理由는 그 文章이 不全하고 上述한 바와 같이 說明한 事項도 또한 理致에 맞지 않는 部分이 있으므로 本文에 잘못 傳하여진 部分이 있고 文章에 不全한 部分이 있음을 可히 알 수 있는 것이다.²³⁾

특히 “故置一俞”와 “亦與三焦共一氣也”에

20)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6.

21) 加藤宗博, 難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42.

22) 【各家註】에 나오기 때문에 脚註處理를 省略한다. 以下【各家註】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23) 吳家鏡,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pp.366-367.

대해서는 一致하지 않는 점이 많다. 丁德用은 “三焦者는 臣使之官이니 位應相火하고 宣行君火命令하여 使行於諸陽經中이라 故로 置一俞하여 名曰原이니 所以府有六은 亦是三焦之一氣이라 故로 三焦共一氣也니라”라고 하여, 三焦는 陽經을 行하니 一俞를 두어 原이라 하였고, 六腑가 陽으로 三焦와 一氣가 되니 三焦共一氣라 한다고 하였다. 楊玄操는 “原者는 元也라 元氣者는 三焦之氣也니 其氣尊大 故로 不應五行이라 所以六府有六俞도 亦以應六合於乾道也니라 然이나 五藏亦有原則以第三穴爲原이요 所以不別立穴者는 五藏法地地卑 故로 三焦之氣經過而已하고 所以無別穴하니 六府既是陽 三焦亦是陽故로 云共一氣也라하니라”라고 하여, 三焦는 原氣 즉 元氣로 尊大하므로 五行에 配屬되지 않으며, 五臟은 法地하여 卑하니 三焦의 氣가 經過할 따름이고 別穴은 없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虞庶는 五臟經에 原穴이 없음에 대하여 “五藏法陰하여 無原一穴者는 謂五行陰脈穴中 原氣가 暗主之라 故로 原²⁴俞는 同一穴也라”라 說明하였는데 五臟은 原氣가 暗主之하기 때문에 原穴과 俞穴을 同一穴로 한다고 한 것이다. 徐大春은 “蓋三焦所行者遠이라 其氣所流聚之處에 五穴不足以盡之라 故別置一穴하여 名曰原이라하니 共一氣는 謂亦行於諸陽이요 非謂其氣皆出於三焦也니라”라고 하여, 三焦之氣의 流聚之處가 遠하기 때문에 五穴로는 不足하여 原穴을 더 둔다고 說明하였다. 또 “共一氣”에 대하여는 “共一氣는 謂亦行於諸陽이요 非謂其氣皆出於三焦也라 其詳은 備見六十六難中이라”라고 하여, 諸陽을 行한다는 말이지 그 氣가 모두 三焦에서 出한 것을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葉霖이 말한 “三焦爲陽氣之根이요 六府屬陽하니 其氣皆三焦所出이라

故曰 共一氣也라하니라”와는 一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葉霖은 原穴의 別置에 對하여는 “三焦所行者 遠하니 其氣所流聚之處에 五穴不足以盡之라 故別置一穴하여 名曰原也라”라고 하여 徐氏와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滕萬卿은 “陽經獨別有原者는 蓋三焦 是六府之配니 而雖無其形이나 然이나 五府非此氣면 則何緣能得幹施運化水穀乎아 然則府之爲物이 專賴此氣之運用耳라 故曰 府有六者는 亦與三焦共一氣也라 하니라”라고 하여 三焦의 重要性을 強調하여 別置原穴을 說明하였다.

以上の 內容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 뜻을 理解하기에는 內容이 充分하지 못하여 더 많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

五輸穴이라 함은 井榮俞經合의 五穴을 말한다. 俞(腧)穴은 鍼灸學에서 가장 重要視하는 要穴이다. 舍嶽은 特히 五輸穴을 重視하고, 人身의 모든 病을 治療하는 鍼灸學의 理論을 展開한 바 있다. 또한 背俞穴은 五臟六腑의 俞穴이 모두 存在하고 있음을 보아 그 重要性을 豫測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韓醫學 最古의 原典인 《黃帝內經》을 비롯하여 俞를 腧 또는 輸라고도 記錄한 書籍이 許多하여 醫學研究에 難關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²⁵⁾ 이에 筆者는 本難의 考察을 通하여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俞, 腧, 輸의 쓰임을 알아 보고자 한다.

玉篇에는 腧를 ‘침자리 수’라 했으나, 俞와 輸는 침자리라고 記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俞는 《說文解字》에 會意文字로서 經穴 및 經絡의 概念이 있다고 되어 있다.

《說文解字》는 東漢時의 著書인데 腧字가 收錄되지 않았음을 보아 腧字는 俞字보다 후에 생긴 글자로서, 俞가 지닌 字

24) 《集注》에는 “原井”이라고 되어 있으나 衍文이라고 하였으므로 바로잡는다.

25) 表天根, 黃帝內經에 나타난 俞腧輸의 概念에 關한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1976. p.2.

意 中에서 特別히 '針자리'라는 뜻으로 생긴 글자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腧의 簡稱으로 俞가 使用될 수는 있다 하여도 腧는 俞에서 派生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輸는 침자리라고 假借하여 使用한데 不過하다.

音은 침자리의 뜻으로 使用했을 경우 俞·腧·輸 三字를 모두 '수'로 發音해도 無妨할 것이다.

俞는 첫째로 《素問》의 〈氣府論篇〉, 〈痺論篇〉, 〈生氣通天論篇〉, 〈長刺節論篇〉, 〈風論篇〉, 〈水熱穴論〉에서는 背俞穴을 通稱하는데 使用됐고, 〈通評虛實論篇〉, 〈舉痛論篇〉, 〈血氣形志篇〉, 〈奇病論篇〉, 〈刺瘡論篇〉, 〈通評虛實論篇〉, 〈繆刺論篇〉, 〈刺法論篇〉에서는 背俞穴中에서 하나의 俞穴만을 指稱하고 있다. 둘째로 〈氣穴論篇〉과 〈方盛衰論篇〉에서는 各 經絡의 井榮俞原經合의 五俞를 通稱하였고, 〈痺論篇〉, 〈水熱穴論篇〉, 〈骨空論篇〉, 〈欬論篇〉, 〈痿論篇〉, 〈繆刺論篇〉, 〈通評虛實論篇〉, 〈大奇論篇〉, 〈刺法論篇〉, 〈經脈別論篇〉에서는 五俞穴 中에서 俞穴 하나만을 指稱하고 있다. 셋째로 〈金匱眞言論篇〉이나 〈骨空論篇〉, 〈水熱穴論篇〉, 〈氣穴論篇〉, 〈診要經終論篇〉에서는 疾病의 反應部位와 發現部位, 그리고 그 治療部位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一般的으로 穴이라는 概念으로 보겠다. 또한 〈疏五過論篇〉, 〈氣穴論篇〉, 〈水熱穴論篇〉, 〈氣府論篇〉, 〈骨空論篇〉, 〈調經論篇〉에서는 一定한 穴이라고 보다 一般的으로 鍼灸穴을 通稱하고 있다. 넷째로 《靈樞》의 〈五變〉, 〈論勇〉, 〈論痛〉, 〈五味論〉 등에는 "少俞"라는 人名으로 使用되었다.

腧는 첫째로 《靈樞》의 〈官鍼〉, 〈衛氣〉에서 背腧穴을 通稱하여 指稱하고 있고, 〈寒熱病〉, 〈癲狂〉, 〈背腧〉, 〈衛氣〉에서는 背腧穴中의 하나의 腧穴만을 指稱하고 있다. 둘째로 〈九鍼十二原〉, 〈本輸〉에서는

各 經絡의 五腧穴을 通稱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九鍼十二原〉, 〈本輸〉, 〈官鍼〉, 〈四時氣〉, 〈熱病〉等에서는 五腧穴中의 腧穴 하나만을 指稱하고 있다. 셋째로 〈本輸〉, 〈終始〉, 〈五邪〉, 〈癲狂〉, 〈厥病〉, 〈邪客〉에서는 一般的으로 穴이라는 概念으로 通用되었다.

輸는 첫째로 《素問》의 〈金匱眞言論篇〉, 〈經脈別論篇〉, 〈水熱穴論篇〉, 〈調經論篇〉, 〈五藏別論篇〉, 〈著至教論篇〉과 《靈樞》의 〈根結〉, 〈五隆津液別〉, 〈禁服〉, 〈衛氣失常〉, 〈動腧〉, 〈官能〉에서는 運輸나 輸送의 意味로 使用되었고, 둘째로 《靈樞》의 〈本輸〉, 〈小鍼解〉, 〈順氣一日分爲四時〉, 〈邪客〉, 〈官能〉, 〈玉版〉에서는 各 經絡의 五輸穴을 通稱指稱하고 있고, 《素問》의 〈離合眞邪論篇〉과 《靈樞》의 〈邪氣藏府病形〉, 〈壽天剛柔〉, 〈官鍼〉, 〈五邪〉, 〈寒熱病〉, 〈癲狂〉, 〈五亂〉, 〈禁服〉, 〈刺節眞邪〉에서는 五輸穴中에서 輸穴 하나만을 指稱하고 있다. 셋째로 《靈樞》의 〈經筋〉, 〈癰疽〉에서는 疾病의 反應部位나 治療點을 指稱하였고, 〈欬論〉, 〈衛氣失常〉, 〈刺節眞邪〉에서는 一般的 穴을 말하고 있다. 넷째로 《靈樞》의 〈官鍼〉에서 鍼法中 하나의 名稱으로 '輸刺'라는 말이 使用됐고, 百病始生에서 使用된 輸脈이라는 것은 虛邪의 人體侵犯 經絡中의 한 段階를 表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背腧穴을 指稱할 때는 俞, 腧를 混用하고 있으며, 五腧穴을 指稱할 때는 俞·腧·輸를 混用하고 있으며, 運輸 輸送의 뜻으로는 輸만을 使用하였으며, 一般的으로 疾病의 反應 및 治療部位를 나타낸다거나, 穴을 意味하는 境遇에는 俞·腧·輸를 混用하고 있다. 俞·腧·輸가 以上과 같이 混同되어 使用하고 있는 것은 文字의 變展過程으로 보아서 俞字의 生成이 제일 앞서고, 다음이 輸字, 그리고 그 다음에 人體

를 나타내는 肉字와 兪가 합하여 腧字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본다.²⁶⁾

以上으로 兪·腧·輸 三字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現在에는 '腧穴'이라는名稱을 '一般的인 經穴'의 意味로 쓰고 있다.

第六十三難

【原文】

六十三難曰 十變에 言 五藏六府의 榮合에 皆以井爲始者는 何也^[1]오

然이라 井者는 東方春也^[2]니 萬物之始生^[3]하고 諸岐行喘息하고 娟飛蠕動^[4]하니 當生之物이 莫不以春生^[5]이라 故歲數始於春^[6]하고 日數始於甲^[7]이라 故로 以井爲始也^[8]니라

【各家註】

《本義》²⁷⁾

[1-8] 十二經所出之穴을 皆謂之井이니 而以爲榮兪之始者오 以井主東方木이라 木者는 春也라 萬物發生之始에 諸岐者는 行하고 喘者는 息하니 息은 謂嘘吸氣也라 公孫洪傳에 作岐行 喙息이라하니 義尤明白이라 娟者는 飛하고 蠕者는 動하니 皆蟲豸之屬이라 凡當生之物은 皆以春而生하니 是以로 歲之數則始於春하고 日之數則始於甲하고 人之榮合則始於井也니라

馮氏²⁸⁾曰 井은 谷井之井이니 泉源之所出也니라

四明陳氏曰 經穴之氣所生은 則自井始하여 而溜榮注兪하여 過經入合이라 故로 以萬物及歲數日數之始爲譬也니라

《集注》²⁹⁾

[1-2] 虞曰 經言 井者는 東方春也라하니 春者는 施化育無求其報하니 春者는 仁也라 在五常에 仁乃法水이니 水之有仁者는 井水也라 井水濟人에 亦無求報하니 故

로 經에 云하대 井者는 東方春也라하니 易曰井은 養而不窮하니 可象春仁也라하니 라

[3] 虞曰 萬物始生은 由春氣之化育也니라

[4-5] 虞曰 井有仁焉이라 故聖人涉春育物하여 以象於井也니라 夫葭灰方飛하여 蟄蟲始振하니 所以岐蟲行하고 喘蟲息하며 娟蟲飛하고 蠕蟲動하니 皆因春氣而生故也니라 娟은 乃井中蟲이라

[6] 虞曰 春은 木也라 下文甲도 亦木이요 井有仁하니 仁亦木也라 今以井爲始者는 謂仁道至大하야 在歲에 春爲首하고 在日에 甲爲首하고 在經脈에 井爲首故也니라

[7-8] 楊曰 凡藏府 皆以井爲始하니 井者는 謂谷井爾요 非謂掘作之井이라 山谷之中에 泉水初出之處를 名之曰井이라하니 井者는 主出之義也라 泉水既生하야 留停於近榮하고 迂未成大流라 故로 名之曰榮이라하니 榮者는 小水之狀也라 留停既深하고 便有注射輸文之處라 故로 名之曰兪라하니 兪者는 委積逐流行하야 經歷而成渠徑하니 經者는 徑也요 亦經營之義也라 經行既達하야 合會於海라 故로 名之曰合이라하니 合者는 會也라 此是水行流轉之義니 人之經脈이 亦法於此故로 取名焉이라 所以井爲始春者는 以其所生之義也요 歲數始於春者는 正月爲歲首故也요 日數始於甲者는 謂東方甲乙也니 正月與甲乙은 皆屬於春也라

丁曰 十二經氣穴과 三百六十五穴은 皆以井爲始하고 各有其終矣라

《圖註》³⁰⁾

2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22-123.

28) 馮珩, 《難經注》를 지었다고 한다.

2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61-263.

30)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大學書局, 1976. p.7.

26) 表天根, 黃帝內經에 나타난 兪腧輸의 概念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76. pp.29-32.

[1-8] 萬物初生에 皆由於春하니 春則蟄虫始振하야 所以蚊虫行하고 喘虫息하니 蚘은 井中虫也니라 蚘虫飛하고 蠕虫動하니 四時春爲之始甲乙木也니라 正月與甲乙皆屬於春이라 故로 十二箇月之始則在甲이요 非月建甲也니라 或以月作日者는 非也라 一身之穴에 井爲之始니 井者는 始氣初行이라 故로 春以井穴로 相同也니라

《經釋》31)

[1] 凡經穴 起止에 其次第는 先井次榮次輸次經次合이라 故로 云以井爲始라하니라

[2] 靈本輸篇에 以井屬木이라 故로 於時配春也니라

[3-4] 蚊蚘蠕는 皆蟲行之狀이요 喘息은 言有氣以息하야 俱蟲多之屬이니 一歲一生之物也니라

[5] 此以生物之理로 喻人之氣血亦然也니라

[6-7] 甲亦屬木이라 言歲與日皆始於木이라 故로 凡物盡然이라

[1-8] 按靈本輸篇에 藏之井은 皆屬木하고 府之井은 則皆屬金이라하니 卽下節에 亦明言之라 今總釋五藏六府之井을 皆屬木이라하니 則倍經語하고 且與下文으로 亦相矛盾이라 若云惟藏之井이 屬木이요 而府는 不與焉 則府之亦始於井하고 而又不屬木하니 義當何居오 下語에 疎漏之甚이라

《懸解》32)

[1-8] 榮合은 以井爲始하니 義詳靈樞本輸라 蚊行喘息 蚘飛蠕動은 謂行息飛動이니 一切諸蟲也니라

《闡註》33)

[1-8] 人身之穴은 以井爲始니 井者는 東方春也라 萬物之始生이라 如歲始於春者는 東方木也요 月始於甲者도 亦應東方木也니라 諸蚊蚘蠕은 皆入蟄之諸小蟲也니

得春風則能行能喘息 能飛能動矣라 十變은 古經名也라

《正義》34)

[1-8] 人身藏府經穴起止에 其次第는 先井次榮次俞次經次合이라 故云以井爲始也이라하니 井은 谷井이니 非掘成之井也라 山谷之中에 泉水初出之處를 名曰井이라하니 井者는 主出之義也라 谿谷出水하야 從上注下하야 水常射焉하니 井之爲道는 以下給上者也라 是則井者는 經脈之所出也니라 其既出濼濼하고 流利未暢이라 故謂之榮이라 說文에 曰 榮은 絕小水也라 水雖絕小나 停留則深이라 便有挹注之處에 濼則外瀉라 故謂之俞라 俞는 與輸로 通이라 說文에 曰 輸는 委輸也니 卽輸瀉之謂라 其既輸瀉 則紆徐逐流하야 歷成渠徑하니 徑은 與經으로 通하니 徑者는 經也라 經行既達하야 而會合於海라 故로 謂之合이라 合者는 會也라 此是水之流行也니라 人之經脈도 亦取法於此라 故로 取以名穴也라 以井爲始하니 春者는 以其發源所生之義也라 歲數始於春者는 正月爲歲首故也라 日數始於甲者는 謂東方屬甲乙하야 爲干之首也니라 蚊蟲行喘息하고 蚘蟲飛하고 蠕蟲動하니 皆春氣發生之義耳니라

《匯海》35)

[1-8] 徐大春曰 靈本輸篇에 藏之井은 皆屬木하고 府之井은 則皆屬金이라하니 卽下節에 亦明言之라 今總釋五藏六府之井을 皆屬木이라하니 則背經語하고 且與下文으로 亦相矛盾이라 若云 惟藏之井이 屬木 而府不與焉 則府之亦始於井하고 而又不屬木하니 義當何居오 下語에 疎漏之至

32)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4.

33)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3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7-118.

3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145.

3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台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니라

張山雷³⁶⁾曰 此等答語는 竟是一孔之人이 妄爲附會하여 知其一而不知其二하니 萬萬說不過去라 若謂越人強爲此論 壽頤不敏終必爲越人大聲叫屈 靈胎譏其疎漏極是

《古義》³⁷⁾

[1-8] 按承上文問하여 藏府每經在爪甲端諸穴 皆以各井으로 且爲始者는 何也오 答意以謂凡有藏府之病하여 內鬱不達하고 心胸支滿等症에 乃取諸井하니 總主開鬱發生之治니라 故曰 井者는 東方春也라하니 萬物始生이라 內經所謂標取而得之가 是也라 諸岐行喘息 蛎飛蠕動等語는 是皆學春陽升騰之時에 蠢然振發者言이니 此以示諸井特爲開發之治爾라 故結之曰 歲數始於春하고 日數始於甲이라하니라

《哀腋》³⁸⁾

[1-8] 岐者는 不能行하고 喘者는 不能息하며 蛎은 卽蟲之稍動者요 蠕은 卽蟲之小而軟者라 今十二經所出之穴을 皆謂之井이라하니 而以爲榮俞之始者라 井主東方하고 於時爲春이니 萬物發生之始하여 諸岐者行하고 喘者息하고 蛎者飛하고 蠕者動이라 凡當生之物은 皆以春而生이라 是以로 歲之數은 始於春而遷代하고 日之數은 起於甲而推步하며 人之榮合은 所以井爲始也니라

【考察】

“井者는 東方春也니 萬物之始生”에 대하여 禹氏는 “春者는 施化育無求其報하니 春者는 仁也라 在五常에 仁乃法水이니 水之有仁者는 井水也라 井水濟人에 亦無求報하니 故로 經에 云하대 井者는 東方春也라하니 易曰井은 養而不窮하니 可象春仁也라하니라”라고 하여 春에 萬物이 始生하는 것을 仁의 施化育하여 無求其報함에 譬喩하였고, 또한 “春은 木也라 下文甲도 亦木이요 井有仁하니 仁亦木也라 今以井

爲始者는 謂仁道至大”라고 하여 仁道의 重要性을 披瀝하고 春木과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井”의 意味에 대하여 楊玄操는 “井者는 謂谷井爾요 非謂掘作之井이라 山谷之中에 泉水初出之處를 名之曰井이라하니 井者는 主出之義也라”라고 하여 물이 自然的으로 샘솟는 곳을 井이라 하고 人爲的으로 만든 우물을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 難에서 論한 五行穴과 井榮俞經合은 陰經의 五行의 性格을 말한 것이고, 陽經에 있어서는 井金 榮水 俞木 經火 合土로서 金에서 始作하니 이 難에서 말하는 萬物은 春木에서 始生한다는 말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徐大春은 《經釋》에서 “按靈本輸篇에 藏之井은 皆屬木하고 府之井은 則皆屬金이라하니 卽下節에 亦明言之라 今總釋五藏六府之井을 皆屬木이라하니 則倍經語하고 且與下文으로 亦相矛盾이라 若云惟藏之井이 屬木이요 而 府는 不與焉이라한 則府之亦始於井하고 而又不屬木하니 義當何居오 下語疎漏之甚이라”라고 하여 그 矛盾됨을 말하였으며, 蔡陸仙도 《匯海》에서 그 말을 引用하고, 또 張山雷의 “此等答語는 竟是一孔之人이 妄爲附會하여 知其一而不知其二하니 萬萬說不過去라 若謂越人強爲此論 壽頤不敏終必爲越人大聲叫屈 靈胎譏其疎漏極是”을 들어 그 矛盾됨에 意見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黃維三의 《發揮》에서는 “그것은 陰이 根本이 되므로, 이 難에서는 陰의 方面에서 論述하고 다음 次例인 六十四難에서 井木과 井金의 關係에 對하여 論述한 것이다.”라고 하여 여기서는 根本이 되는 陰만을 들어 說明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筆者가 보기에는 역시 矛盾을 說明하기에

37)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38) 加藤宗博, 難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43.

36) 이름은 壽頤이다. 江蘇嘉定人이다. 《難經匯注箋正》을 지었다.

는 不足한 듯 하다.

그 밖에 이 難에서 說明한 “歲數始於春日數始於甲”에서 “數”의 意味는 難解한 部分이 있다. 滑壽는 “凡當生之物은 皆以春而生하니 是以로 歲之數則始於春하고 日之數則始於甲하고 人之榮合則始於井也니라”라고 하여 原文과 다른 없는 說明을 하였고, 楊玄操는 “歲數始於春者는 正月爲歲首故也요 日數始於甲者는 謂東方甲乙也니 正月與甲乙은 皆屬於春也라”라고 하여, 正月이 歲數가 되는데 春에 屬하니, 歲數始於春이고, ‘日數始於甲者’는 東方甲乙을 이 르는데 甲乙도 春에 屬하기 때문이라고 說明하였다. 한편 張世賢은 “正月與甲乙皆屬於春이라 故로 十二箇月之始則在甲이요 非月建甲也니라 或以月作日者는 非也라”고 하여 ‘日數’는 잘못되었고, ‘月數’가 맞으며, 正月과 甲乙이 모두 春에 屬하기 때문에 十二箇月の 始가 甲에 있는 것이고, 月健의 甲을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葉霖은 “歲始於春者는 正月爲歲首故也라 日數始於甲者는 謂東方屬甲乙하야 爲干之首也니라”라고 하여 楊氏과 비슷한 見解를 가졌다.

以上과 같이 各註家들의 見解가 分明치 않고 그 內容이 難解하여 意味를 完全하게 理解하기에는 充分하지 못하다.

IV. 結 語

本 研究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六十二難에서는 手足三陰經에 各各 五俞穴이 있고 手足三陽經에는 各各 六俞穴이 있는 問題를 論하였으며, 그 理由는 三焦가 六府의 陽經을 行하기 때문에 陽經에는 五俞穴인 井榮俞經合以外에 原穴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理解하기에는 內容이 充分하지 못하다. 그 理由는 三焦의 氣가 결코 單獨으로 陽經이나

陽分만을 循行하지 않고 <六十六難>에서 이른바 “五臟俞者 三焦所行 氣之所留止也”와 같이 또한 陰經도 역시 循行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俞穴은 氣가 留止하는 곳이다. 三焦의 原氣는 腎의 精이 化하여 머무르는 곳이며 榮衛의 內에 들어가 全身을 循行하며, 生命體에 賦與된 原動力이니 陰陽의 區別은 없는 것이며 全身의 陽經과 陰經을 走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十二難에서 說明하고자 한 ‘陽經에 原穴이 따로 존재하는 것과 陰經에는 俞穴이 原穴을 兼하는 것’의 理由는 그 文章이 不全하고 上述한 바와 같이 說明한 事項도 또한 理致에 맞지 않는 部分이 있으므로 本文에 잘못 傳하여진 部分이 있고 文章에 不全한 部分이 있음을 可히 알 수 있다.

六十三難에서는 十二經脈이 모두 井穴로서 始作을 삼는 道理를 論하였으며, 그 理由가 井穴은 方位上 東方에 屬하고, 季節上 春에 屬하기 때문에 萬物의 始生을 象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難에서 論한 五行穴과 井榮俞經合은 陰經의 五行의 性格을 말한 것이고 陽經에 있어서는 井金, 榮水, 俞木, 經火, 合土로서, 金에서 始作하니, 이 難에서 말하는 萬物은 春木에서 始生한다는 말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그것은 陰이 根本이 되므로, 이 難에서는 陰의 方面에서 論述하고 다음 次例인 六十四難에서 井木과 井金의 關係에 對하여 論述한 것이라는 意見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六十二難과 六十三難에 모두 빠진부분이 있는지가 疑心되며, 難解한 部分이 많아서 더욱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參 考 辭 典 類

2. 表天根：黃帝內經에 나타난 兪脰輸의 概念에 關한 考察，慶熙大學校大學院，1976.
3. 洪元植：中國醫學史，東洋醫學研究院，1987.
4. 丹波元簡：中國醫籍考，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5. 黃元御：難經懸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6. 丁錦：古本難經闡注，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7. 葉霖：難經正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1.
8. 蔡陸仙：中國醫學匯海難經，서울，成輔社，1978.
9. 勝萬卿：難經古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10. 加藤宗博：難經哀腋，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4.
11. 黃維三：難經發揮，臺北，中國醫藥學院，1989.
12. 木間祥白：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1965.
13. 王九思：難經集注，臺北，臺北中和書局，1985.
14. 張世賢：校訂圖註難經，臺北，大學書局，1976.
15. 凌耀星：難經校注，서울，一中社，1992.
16. 南京中醫學院：難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9.
17. 唐湘清：難經今釋，臺北，國立編譯館，1967.
18. 滑壽：難經本義，臺北，世一書局，1980.
19. 徐大春：難經經釋，徐靈台醫書全集，臺北，烏州出版社，1968.
20. 王洪圖：難經，北京，春秋出版社，1988.

1.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1987.
2. 民衆書林編輯局編：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1986.
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中韓辭典，서울，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9.